

쟁점토론1 : 고교평준화정책

I. 고교평준화란

-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이란 1974년 이후 시행된 지역 내 고등학교 수준 차이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
- 한 지역의 개별 고등학교에서 독자적으로 학생을 선발하지 않고, 학생이 속한 학군별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인문계학교에 배정하는 제도. 지역에 따라 연합고사를 치러 일정 성적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첨하다가, 중학교 내신 성적을 중심으로 고교 수학자격을 부여한 뒤 추첨하는 방식으로 전개

II. 고교평준화 정책의 배경과 전개과정¹⁾

1. 고교평준화정책 도입배경

1) 교육적 문제의식

고교입시 준비로 인해 중학교 교육과정이 과행적으로 운영됨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중학생들의 전인적 성장 저해
지역 내 1류, 2류, 3류 학교 하는 식으로 학교 간 교육격차 심화

2) 사회적 배경

명문고에 대한 집착으로 재수생 누적과 과열과외
학생인구의 도시 집중 - 명문고가 많은 대도시 혹은 도청소재지 급 도시로 학생과 그 가족 유입 -> 당시 도시 기반시설 등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급속한 인구 증가 문제 야기 - 요즘은 이런 문제로 인해 평준화하는 것은 아님.

2. 고교평준화정책의 전개과정

- 1974년 : 서울, 부산
- 1975년 : 대구, 인천, 광주
- 1979년 : 대전, 전주, 마산, 청주, 수원, 춘천, 제주

1) 이종각(2005), 새로운 교육사회학총론, 서울: 동문사, p. 253

- 1980년 : 창원
 - 1981년 : 성남, 원주, 천안, 군산, 이리(익산), 1995년 천안 평준화정책 폐지
- * 그 후 소도시 지역의 경우 평준화정책의 실효성 논란이 일면서 1990년 군산, 목포, 안동, 1991년 춘천, 원주, 익산, 1995년 천안 평준화정책 실시
- 2000년 : 울산 + 군산과 익산은 다시 평준화 실시 (내신선적이 대입에 중요해지면서)
 - 2002년 : 성남(분당), 과천, 안양, 군포, 의왕, 부천, 고양
 - 2005년 : 순천, 여수 + 목포 다시 평준화 실시
 - 2006년 : 김해
 - 2008년 : 포항
 - 현재 논쟁 중인 지역 많음. 2012년부터 강원도의 춘천, 원주, 강릉, 그리고 경기도 광명, 안산, 의정부에서 평준화하기로 도 교육청 결정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승인 요청. 교과부는 승인 유보. 천안 등에서 평준화도입 논쟁 치열

▶ 현재

- 전체 고교 수에서는 비평준화 지역 -입학시험 등 선발 과정을 거쳐 진학하는 지역-에 있는 학교가 askg고,
- 학생 수는 평준화지역이 대부분 대도시나 도청소재지 급 혹은 인구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학교당 학생 수가 많은 관계로 평준화지역 학생 수가 약간 많음

III. 고교평준화정책의 성과와 한계²⁾

1. 고교평준화정책의 성과

- 고등학교 교육기회 확충
- 고등학교 입시경쟁 해소 - 고교 간 격차 완화
- 중학교 교육과정 정상적 운영 가능
- 1, 2, 3류 학교라는 학교 간 서열 해체로 위화감과 차별 해소
- 사교육 부담 축소

2. 고교평준화정책의 한계

- 교육효과 저하로 하향평준화라는 논란 야기
- 학생과 학부모 선택권 침해 주장 대두

2) 이종각, Ibid., p. 256

사교육비 증가 주장 등장
 사학의 자율성 위축 주장 대두

IV. 고교평준화정책을 둘러싼 쟁점

1. 하향평준화 논란

평준화 반대론자	평준화 찬성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성적이 다른 학생들이 섞여있는 이질적인 학급구성으로 효과적인 수업 진행 불가능함 -> 교실붕괴, 성적저하 -> 하향평준화 -> 국가경쟁력 저하 -> 경제발전 저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질적인 학급구성이 성적을 떨어뜨린다는 실증적 연구 없음 · 세계 최고의 학업성취도를 자랑하는 핀란드는 철저한 평준화 국가이고, 소위 선진국 중 평준화하지 않는 나라는 없음 · PISA 결과 한국은 세계 2위 수준의 학력 가진 국가 · 최근 실증적인 연구에 의하면, 상위 5%는 성적 향상정도에서 별 차이 없음 상위 5-20%는 비평준화지역이 성적향상 정도가 2점 정도 높음. 20%이하는 평준화지역의 향상도가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준별 수업 할 바에야 고등학교 입학할 때 시험을 쳐서 수준이 비슷한 학생들을 모아 가르치는 더 효과적이다. · 어차피 교육에 있어서 인세영 있어서 경쟁이 불가피한데, 조금 일찍 경쟁을 배우는 게 뭐가 그리 큰 문제인가? 오히려 내가 이를 악물고 명문대 가지 하면서 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겠는가? · 자기 수준이 높지 않은데, 평준화학교에 가게 되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질적인 학급구성으로 인한 문제 해결책의 하나로 주요과목 수준별 수업 진행하고 있음 · 시험을 쳐서 입학한 명문고 안에서도 수준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 · 고등학교 때부터 1, 2, 3류 하는 식의 학교 서열로 학교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2, 3류 학교 학생들은 교복을 자랑스럽게 입고 다니지 못하고 지역사회주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 하는 등 어린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게 교육적인가? · 고교입시를 통해 고등학교를 서열화

<p>면서 열등감을 가지지만, 시험결과에 따라 중간 수준의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비슷한 수준이니 여기서 열심히 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결의를 다지게 되면서 성적이 향상될 수 있다.</p>	<p>하게 되면, 비슷한 수준이 모였기 때문에, 1류 학교의 경우 효율적인 수업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나을지 모르지만, 2, 3류 학교는 입학할 때부터 패배자라는 열등의식으로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음</p>
---	--

2. 사교육비 증가

평준화 반대론자	평준화 찬성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준화정책으로 인해 다양한 학업성취수준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 각자의 지적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해 사교육에 의존 -> 사교육비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교육비 통계를 내보면 비평준화지역이 평균적으로 월 8천원 정도 더 지불하는 것으로 나옴 · 평준화제도와 사교육비 지출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근거 발견하지 못함 · 사교육비는 평준화 변인보다 지역,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여건, 부모의 학력수준 등 다른 배경변인이 더 큰 영향을 준다.

3. 학생과 학부모 선택권 침해

평준화 반대론자	평준화 찬성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의 교육여건이 균등치 않은 상태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교육권 침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교는 의무교육이 아니지만 사실상 100% 가까운 진학을 보이고 있어 사실상 의무교육화한 상황 · 따라서 고교단계에서는 개인의 선택에 따른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보다 공동체적 가치와 사회적 덕목을 함양할 수 있는 표준과정 이수가 바람직 · 현재도 과하고, 외고, 자립형사립고, 자율형 사립고, 예술고, 마이스터고 등 다양한 학교 존재 · 학교선택권을 인정한다 했을 때 무엇

	<p>을 위한 학교선택이나 -> 학습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명문대 진학을 위한 입시 전문학교를 위한 선택인 것이 현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준화로 인한 교유그이 획일화를 비판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처럼 명문대 지학을 위해 선택권을 주장하는 경우, 그래서 선택권을 보장하여 선발과정을 거쳐 진학하는 경우, 더욱 더 주요 교과목 위주의 입시준비 위주의 획일적 교육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음 -> 평준화보다 비평준화하는 경우 더욱 더 획일적 교육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	---

4. 사학 자율성 위축

평준화 반대론자	평준화 찬성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학은 나름의 건학이념 실현을 위해 학생을 선발할 수 있어야 함 -> 서울 대광고 강의석 사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학은 재단의 전입금이 거의 없이 정부 지원으로 운영하는 학교가 대부분. 이름만 사립일 뿐 사실상 준 공립화 • 현재 대부분의 도시에서 거주지 우선으로 학교를 1, 2, 3지망 하는 식으로 선택하게 하고 있음. 따라서 해당학교가 -대개 종교계 학교등이 이를 문제 삼음 - 특정 종교를 가진 학생들만 선택하게 할 수 있음

V. 예비교사 여러분의 선택은?

- 성적이 다른 학생들이 섞여 있는 학교의 수업문제와 그 대안으로서의 수준별 수업문제, 그리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시험 쳐서 수준이 비슷한 학생들끼리 모아서 가르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질문
- 고등학교부터 생기는 학교서열화문제와 2, 3류 학교 학생의 열등감을 교육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가?
-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 침해문제와 그 해결책으로 고교입시를 부활했을 때 그런

선택권을 누가 누릴 수 있는가 하는 문제, 공부 못하는 학생을 선택도 하면 안되는
가 하는 문제

- 평준화로 추첨을 하다보면 바로 집 앞에 있는 학교를 두고 먼 거리를 통학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 수준이 다른 학생들이 함께 수업함으로써 생겨나는 문제로 인해 사교육을 받을
수 밖에 없고, 그에 따라 사교육비가 더 증가한다는 주장과 사교육은 평준화, 비평
준화 가릴 것 없이 명문대학을 향한 경쟁이 있는 한 차이가 없다는 반론 고려

<신문 칼럼>

이범 | 학력저하가 고교평준화 탓이라고 | 한겨레 2007.11.18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250882.html>

김영환 | 외로운 뇌 | 한겨레 2008.02.10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268588.html>